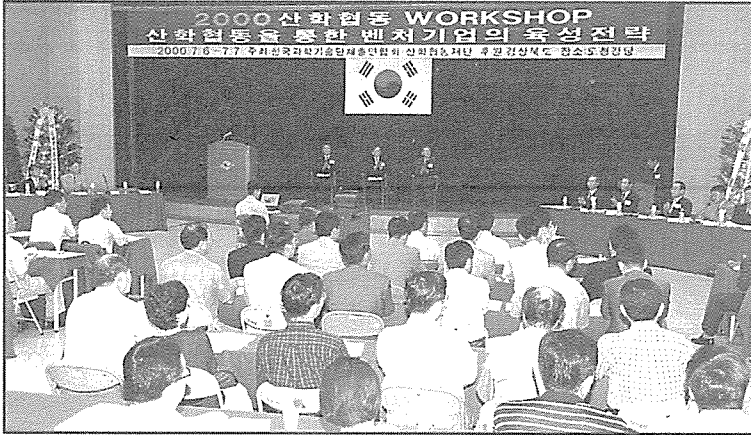


# 科總, 경상북도와 産學協同방안 모색

## — 벤처기업 育成戰略을 위한 워크숍 개최



워크숍 개최식 전경  
경북도청 강당에서 개최한 2000산학협동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 2부로 나눠 워크숍 진행

이어서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워크숍 제1부에서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종득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장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계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지식기반 산업을 위한 산학 연계작업은 핵심 기술을 산학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확보하는데 있다」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의 활성화방안으로 ①수요자의 입장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정책 수립 ② 상호연결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중앙 정부 주도형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특성화 전략 개발 ④제3세대형 연구개발 전략을 통하여 기업의 공동 참여 유도 ⑤하부구조를 구축하여 활성화 도모 ⑥연구개발 차원에서 기술 이전 및 활동에 대한 기술경영 전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산학협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2000산학협동워크숍”이 7월 6~7 양일간 경북도청 강당에서 김병수 과총회장,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최덕인 한국과학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산학협동재단이 주최하고 과학기술부·경상북도 후원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김병수 과총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의근 경북지사의 환영사가 있는 다음 곧이어 워크숍 발표로 들어가 제1부에서는 “산학협동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한 4편이, 제2부에서는 “분야별 벤처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4편 등 총 8편이 발표됐다.

### 김병수 회장·이의근 도지사 참석

이날 개최식에서 김병수 과총 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2000산학협동워크숍

을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을 수상한 경상북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더 뜻이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동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지식산업의 꽃이라 할 벤처산업의 육성 없이는 글로벌경쟁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늘 워크숍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산학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되고 벤처



황인태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이 「한국 인터넷산업현황과 벤처경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략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박중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기술진흥본부장은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동 추진전략」에서 바람직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방안으로 『①시장·마케팅·경영 등 전문경영인 영입/자문 ②인력·교육시스템 확충 ③벤처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집적화(시설) ④TBI기업 육성가능 확대를 위한 TBI관리자 양성 ⑤대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의 협력 강화』를 강

신문사 논설위원은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으로 『①낮은 비전과 이상 ②명확한 Target Markets의 부재 ③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자금 ④부적절한 파트너·투자자 ⑤빈약한 비즈니스 모델 ⑥불명확한 시장전략 ⑦시기의 부적절성 ⑧정

환경벤처협회장, 「대학 실험실 벤처」는 서정선 램벤처협회장이, 「정보통신벤처 산업」은 김홍선(주)시큐어소프트 대표(이사)가, 「바이오벤처산업」에 대해서는 한문희 한국바이오벤처기업협회장이 각각 발표했다.



경상북도지사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 이의근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워크숍에 참가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아랫줄 왼쪽부터 김희술경북테크노파크사업단장, 박명재경상북도부지사, 이걸삼과총사무총장, 장인순원자력연구소장, 최덕인KAIST원장, 이의근경상북도지사, 김병수과총회장, 한문희바이오벤처기업협회장, 김충섭화학연구소장, 서상기호서대교수, 안윤식경북경제통상실장, 뒷줄은 발표자·토론자들

조했다.

안윤식 경상북도 경제통상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학협동 추진전략」발표에서 『①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산학협동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지원 ③지역 대학에 대한 장비 구축비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소로 활용 ④산업비밀 보장 및 지적재산권 발굴을 통한 사업화 지원 ⑤연구개발 인력의 교류 지원 ⑥산학관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산학협동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한국 인터넷산업 현황과 벤처 경영의 문제점」을 발표한 황인대 매일경제

확하지 못한 이미지와 포지션 ⑨비효과적인 실행」등을 들고,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에 대해 잘 알아야 함은 물론 ②기업처럼 벤처를 경영해야 하며 ③강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④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서 ⑤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⑥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제1부 끝 순서로 진행된 지명토론에서는 이전영 포스텍기술투자(주)사장(포항공대 교수) 등 4명의 지명토론자가 각각 주제발표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 산학협동추진책건의사항 토론

제2부에서는 서상기 호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벤처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환경벤처산업」은 김형철 한국

한편 7일에는 산학협동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조찬간담회와 연구개발현장 견학이 있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이걸삼 과총사무총장은 『금번 경상북도 와 함께 가진 워크숍

이 과학기술의 지방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워크숍을 가질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과총은 최덕인 과총산학협동위원장 주재로 산학협동위원, 연사, 토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과 종합토론에서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관계요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⑤

### “과총-사무처 기구개편 단행”

- 1실 1본부 6팀으로 축소 운영 -

과총은 지난 7월1일자로 과학기술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 기구를 개편하고 새로운 인사를 발령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1실 3본부 10팀에서 1실1본부 6팀으로(2본부 4팀 폐지)축소통합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번째 구조조정으로 사무처 현재 인원은 정원대비 56%선에서 인력을 운영하게 된다.